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썰의 나라로

미요 시부야(Miyo Shibuya) /
삿쵸로시 건강을 지키는 부인의 모임 회장



▲ '94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본회를 방문한 일본 북해도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부인단체연합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맨 아래줄 좌측 두 번째부터 김대규 본회 사무총장, 정기자 복십자부인봉사회장, 미요 시부야 부인단체연합회 회장.

이들은 지난 '94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한결핵협회, 연구원과 복십자부인단체에서 탐고있는 불우결핵요양시설을 방문한 일본 북해도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부인단체연합회(대표:미요 시부야) 회원이 느낀 점 등을 적어서 일본의 전국결핵예방부인회 소식지인 "건강의 윤" 1994년 10월호에 게재했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부 해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 26명은 3월23일 한국에 결핵사정 시찰을 떠났습니다. 타이완국, 인도네시아의 발리에 이은 3번째 여행입니다.

결핵예방회결핵연구소의 모리 선생의 도움을 받고 대한결핵협회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김대규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의 자상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여행의 스케줄은 24일 아침 대한결핵협회의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복십자부인봉사회장의

환영을 받고 회의실에서 김대규총장의 협회의 활동사항, 예산설명에 이어 부인회 정기기자회장의 회의 조직과 사업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우리들 일행은 적은 액수이지만 모금한 돈을 협회와 부인회에 전달했습니다.

협회장 주최의 점심에 이어 오후에는 제12회 세계결핵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회 제2부 주제강연은 연세대 의과대학 김준명 내과교수의 “한국의 결핵과 에이즈”강연과 함께 제가 “일본의 결핵의 현황과 부인단체의 활동”이란 제목으로 강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2일째인 25일은 부인회의 회원 여러분과 버스에 동승하여 한국복십자부인봉사회가 매년 돕고있는 있는 난치결핵환자들의 요양시설인 “시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교외의 자연속에 가톨릭 교회의 수녀와 신자의 도움과 봉사로 약 30인의 환자가 조용한 요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전해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오후에는 결핵연구소를 방문하고 홍영표 원장의 한국의 결핵의 현황과 대책, 연구소의 역할 등 풍부한 자료에 대해 정성어린 해설을 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여러분들에게 과일과 차를 대접받은 것도 마음에 남습니다. 2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국과 일본의 결핵을 한 시점에서 비교하자면 발생률 등이 한국이 몇 배 더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이 결핵대책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일본과 같은 결핵대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나는 강연중에 “현재 일본이 안고있는 결핵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장기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2일간 우리들을 위해서 일본어를 사용하여 회화,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썰의 아름다운 한국은 젊은이의 표정도 밝고 활기도 넘쳐, 매력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나에게 가깝고 가까운 나라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제까지의 3회의 여행을 통하여 우리들은 아시아 각국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인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핵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은 저희 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하나가 되어 결핵이 없어지는 날까지 손을 맞잡고 활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오늘 북해도에 있는 우리 26명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국에서의 강연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94년 3월 25일 복십자부인봉사회 임원들과 함께 복십자회에서 돕고 있는 시몬의집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우: 정기자 복십자부인봉사회장, 시몬의집 책임수녀, 미요시부아 샷벤로시 건강을
지키는 부인의 모임회장